

2026년도 4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위원정수	12명
소집통보	2026. 7. 01.

1. 일 시 : 2026년 7월 9일 11:00
2. 장 소 : 정금관 4층, 세종관 323호, ZOOM
3. 참석의원 : 김동문, 김동원, 김우석, 백정하, 이윤준, 김진태, 차수현, 심진수
4. 불참의원 : 이지영, 최기우, 이재복, 유동욱
5. 회의안건 :
 - 가. 중부대학교 학칙 개정(안)
 - 나. 대학원 학칙 개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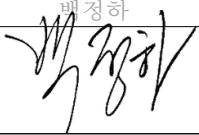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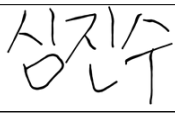
6. 회의내용

의 장(김동문) :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4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 부장(류달근) : [중부대학교 학칙 개정(안)] 설명

의 장(김동문) : 의견이 있으신 위원분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 장(김동문) : 교육편제단위 표준분류 지침에 근거하여 계열 구분 및 학사학위 종별을 반영한 사항으로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중부대학교 학

<간서명>	김동문	백정하	심진수
			

칙 개정(안)을 통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 원(전 원) : 동의, 재청합니다.

의 장(김동문) : 중부대학교 학칙 개정(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 안건 설명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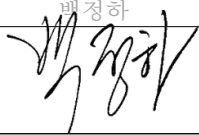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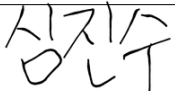
대학원 주임(정순한) : **[대학원 학칙 개정(안)] 설명**

의 장(김동문) : 의견이 있으신 위원분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 장(김동문) : 금번 정원조정으로 인해 모집중지 대상 학과가 총 21개 학과에 이르는 만큼, 향후 학과 폐지 과정에서 학생 보호, 학사 운영, 교원 배치 및 조직 운영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모집중지 대상 학과의 선정 기준과 추진 절차, 향후 학과 폐지까지의 진행 과정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대학원 주임(정순한) : 모집중지 대상 학과 선정과 관련하여, 1차적으로 관련 위원회에서 객관적인 폐지 기준을 마련하여 심의를 진행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최근 3년간의 학생 모집 실적, 재학생 유지율,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및 전년도 폐지 대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으며, 각 평가항목을 점수화하여 총점이 마이너스(-) 10점 이하인 학과를 모집중지(폐지 검토) 대상 학과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선정된 대상 학과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해당 학과에도 평가 결과와 선정 사유를 안내하여 의견을 청취하는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추진하였음을 설명드립니다.

의 장(김동문) : 박사과정의 경우 학과별 입학정원을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증원한 학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대학의 재정 확보에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 내년도 입학전형

<간서명>	김동문	배정하	심진수
			

에서 입학정원이 5명인 학과에 지원자가 3명만 지원한 경우에도 해당 학과를 정상적으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모집 인원이 정원에 미달할 경우 학과를 개설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운영기준을 질의드립니다.

대학원 주임(정순한) : 대학원 학생 모집은 1차 모집 시 학과별로 승인된 입학정원에 따라 모집을 진행하며, 입학정원이 5명인 학과는 우선 5명을 모집 대상으로 선발 절차를 진행함을 말씀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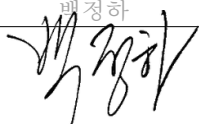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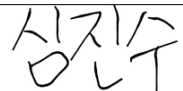
다만, 1차 모집 이후에도 모집인원이 충원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학원 전체 충원율을 고려하여 추가 모집을 실시하게 되며, 대학원은 학과별 정원보다는 대학원 전체 정원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어 전체 정원 범위 내에서 충원을 추진하게 됨을 설명드립니다.

또한, 특정 학과의 지원자가 입학정원에 미달하였다고 하여 해당 학과의 개설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학과 운영 여부는 학생 모집 결과, 교육과정 운영 여건 및 대학원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따라서 입학정원이 5명인 학과에 3명만 지원한 경우에도 즉시 학과 운영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으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최종 판단하게 됨을 설명드립니다.

의 장(김동문) : 대학의 입장에서는 대학원생 3명도 결코 적은 인원이 아니며, 대학 재정과 미래 경쟁력 확보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요소만을 지나치게 고려할 경우 소수의 학생이 지원하는 학과들이 지속적으로 모집중지 또는 폐지 대상이 되어 학문 분야의 다양성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대학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뿐만 아니라 학문적 다양성과 특성화, 교육의 공공성도 함께 고려하여 대학원 학과 운영 및 정원조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대학원 주임(정순한) : 현재 대학원은 총 66개 학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부가 약 45~50개 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대학원 학과 수가

	김동문	배정하	심진수
<간서명>			

상대적으로 많은 상황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대학원에서는 학과 신설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운영 실적이 저조한 학과에 대한 정비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학과가 누적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금번 정원조정 및 모집중지는 이러한 누적된 문제를 해소하고 대학원의 운영 효율성과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대학원의 교육역량과 운영의 내실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게 되었음을 설명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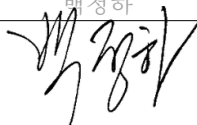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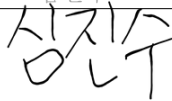
의 원(백정하) : 앞서 설명을 통해 대학원 정원 증원에 따른 학생 충원 방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으며, 입학정원 확대 이후 실제 충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우려도 해소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금번 모집중지 대상 학과의 경우 재학생이 모두 졸업할 때까지 전공 교육과정은 계속 유지된다고 설명하였는데, 대부분 2028년 또는 2029년까지는 재학생들의 학업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재 모집중지 대상 학과별 재학생 현황은 어떠한지, 또한 재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교육과정 운영과 학위 취득에 차질이 없도록 충분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대학원 주임(정순한) : 모집중지 대상 학과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학생 모집 실적뿐만 아니라 재학생 현황도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음을 설명드립니다.

현재 내년도 모집중지 대상 학과의 재학생 수는 학과별로 대부분 10명 이하이며, 일부 학과는 5명 내외의 재학생이 재학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재학생들이 졸업 시까지 학업을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 전공과목 개설 및 학사관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해진 수업연한 내에 학위 취득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과 관리를 철저히 시행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간서명>	김동문	백정하	심진수
			

의 원(김동원) : 모집중지 대상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 대해서는 우선 대학이 수립한 학사 운영 일정에 따라 가능한 한 정해진 기간 내에 졸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부득이하게 해당 기간 내에 졸업하지 못하는 학생이 발생할 경우에는 대학원 학칙에서 정하고 있는 타 학과 교과목의 수강 및 학점 인정 제도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학위 취득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임을 보충하여 설명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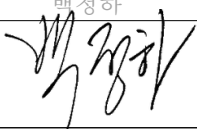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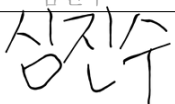
의 장(김동문) : 이러한 방안이 학생들에게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것인지 추가 질의 드립니다.

대학원 주임(정순한) : 학생에게 특정 교과목 수강이나 졸업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며, 학생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대학은 학생들이 학칙에서 정한 수업연한 내에 원활하게 졸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상담하고 안내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 가능한 한 정해진 기간 내에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임을 설명드립니다.

의 원(백정하) : 대학원의 경우 학부와는 달리 학생들이 특정 전공에 대한 강한 의지와 학업 목적을 가지고 입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모집중지 학과 재학생에 대한 학사 운영은 학생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드립니다.

아울러 대학에서 학생들의 원활한 졸업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은 이해하지만, 학사 운영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사와 전공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면밀한 검토와 세심한 지원을 통해 해당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간서명>	김동문	백정하	심진수
			

대학원 주임(정순한) : 대학에서도 재학생들이 모집중지로 인해 학업이나 졸업에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학사 운영과 교육과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재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학생들의 졸업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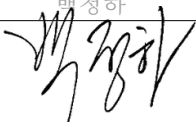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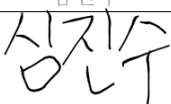
의 장(김동문) :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대학원 학칙 개정(안)을 통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 원(전 원) : 동의, 재청합니다.

의 장(김동문) : 대학원학칙 개정(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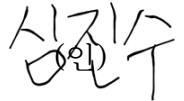
회의록 서명과 관련하여 의장 김동문의원, 외부전문위원대표 백정하의원, 학생대표 심진수의원이 간서명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4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서명>	김동문	백정하	심진수
			

위의 사실을 확인함.

2026. 7. 9.

대학평의원회	의 원	김 동 문	(인) 
	의 원	이 지 영	(인)
	의 원	김 우 석	(인) 
	의 원	김 동 원	(인) 
	의 원	이 윤 준	(인) 
	의 원	백 정 하	(인) 
	의 원	차 수 현	(인) 
	의 원	최 기 우	(인)
	의 원	이 재 복	(인)
	의 원	김 진 태	(인) 
	의 원	유 동 욱	(인)
	의 원	심 진 수	(인) 

<간서명>	김동문	백정하	심진수
		